

그림책 활용 미술 수업 어린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권혁미(고양시 한수초등학교 교사)

I. 서론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한 오늘날의 교육은 지식 및 학업 성적, 학습기능 향상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똑똑한 학생들을,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私)교육을 증가시키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인간 소외현상, 관계의 부재, 그로 인한 학교폭력 문제들이 야기되고 학생 자살율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제고해 봐야 한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미디어 및 전자 기기 발달이 가져온 가족간의 의사소통 기회 감소, 학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증, 학교 부적응과 학교폭력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 오늘날 학교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인성교육으로서, 도덕성 교육으로서, 그리고 시민교육으로서 경험과 학습으로 계발될 수 있는 정서지능 교육이다. 감성지능이라고도 불리는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여 인성적 발달과 함께 지적 성취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감성을 다룬 학습을 통해 정서지능이 계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그림책을 활용한 미술 수업이 어린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본론

그림책 활용 미술 수업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 초등학교 3학년 두 학급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하였으며, 실험집단 학급에는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그림책 활용 미술 프로그램(24차시)이 연구자에 의해 적용되었고, 비교집단 학급은 담임교사에 의해 국가수준의 일반적인 미술 수업이 이루어졌다. 두 집단의 정서지능 측정을 위하여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로서 1996년 문용린이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후 같은 검사지를 활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학급 아동들에 대한 행동 관찰과 인터뷰, 작품 및 작품 소개글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아동들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석하였다.

III. 결론

그림책 활용 미술 수업을 적용한 결과 실험집단 아동들의 정서지능은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실제로 정서지능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책 활용 미술 수업을 통해 아동들은 그림책에 제시된 다양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기 내면의 감정들을 미술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배출함으로써 아동들의 정서지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림책과 미술의 만남은 아동의 정서를 풍부히 하고 미술 작품에, 문학 작품에 공감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잘 이해하게 하며, 향상된 개인의 감성을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인관관계를 맺게 하는 등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